

보도시점 (인터넷) 2024. 11. 24.(일) 11:00,
(지면) 2024. 11. 25.(월) 조간

배 포 2024. 11. 22.(금) 오후

해양수산부, 해녀와 함께 해녀어업유산 보전·전승 방안 만들어간다

- 제29회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따라 해녀어업유산
보전·전승 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녀어업유산의
보전·전승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5일(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녀어업유산의 보전·전승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는 전국해녀협회 및 해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해녀협회의 역할 정립 및 지원, △해녀형 귀어학교
확대, △해녀가 운영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 △해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공익직불금 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고유의 해녀
어업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전·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오영진 (044-200-5651)